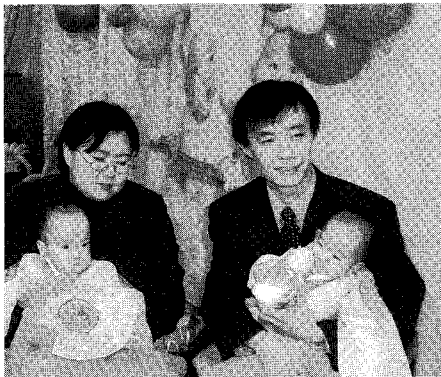


## 닭고기 요리로 '첫 돌잔치'를 맞이한 삼쌍둥이 자매 '사랑이와 지혜'

(홍보팀)



'돌을 맞이한 '사랑이와 지혜' 가족



'회 최준구 회장이 생산자들을 대표해 돌잔치 위주로 있다.

**대** 한양계협회는 지난 2월 28일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닭고기 요리로 돌잔치 행사를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양계산업을 강타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양계산업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을 때 양계인들에게 힘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였다.

돌잔치를 한 주인공들은 바로 지난해 3월 엉덩이 부분이 붙어 한몸으로 태어난 삼쌍둥이 자매인 '사랑이와 지혜'로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분리수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사랑이와 지혜'는 수술 이후 4개월동안의 회복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생활해오고 있다.

본 행사가 닭고기 요리로 식단이 마련된데는 당시 조류독감으로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양계농가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그 동안 고마움을 준 분들을 모시고 닭고기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사랑이와 지혜'의 아빠인 민승준씨의 소박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본회 최준구 회장, 한국양계조합 이영재 조합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등 관련업계 인사는 물론 가족, 친지,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민승준씨는 감

사의 말을 통해 “노심초사 아이들에게 무슨일이 생길까 마음을 졸이며 생활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벌써 돌을 맞이하였다며, 그 동안 도움을 받고만 살아온 만큼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한 “최근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닭요리로 돌잔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행사진행에 도움을 준 대한양계협회에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귀중한 생명을 새로 얻은 두 자매의 1주년 생일을 자축하는 이날 행사에는 사랑이와 지혜 인터넷 후원카페 ‘사랑이와 지혜’ 회원, 두 자매의 모금을 담당해온 어린이보호재단 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두 자매는 이날 마이크, 실, 볼펜, 돈, 떡을 놓고 진행된 돌잡이에서 사랑이는 떡과 볼펜을, 지혜는 마이크와 떡을 각각 집어 하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하객들은 공통적으로 떡을 집은 두 자매가 평생 ‘먹을 복’이 있고, 돌잡이의 예언대로 사랑이는 학자로, 지혜는 연예인으로 건강하게 커나가기를 기원했다.

이날 마련된 부폐식 닭요리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 마련하였는데, 닭김밥, 닭안심초밥, 닭고기 냉채, 닭 강정, 닭고기 볶음밥, 닭고기 잡채, 닭죽 등 20여가지가 전부 닭고기가 이용되었으며, 행사에 참가한 하객들이 ‘정말 맛있다’며 닭고기 요리의 진가를 만끽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으며, 양계 산업 불황극복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KBS, SBS TV 등 방송사 및 각종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나온 4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삼쌍둥이 자매인 ‘사랑이와 지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양계농협과 농협중앙회 목우촌 닭고기에서 계란과 닭 가공품 등을 선물로 제공하면서 양계산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행사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양계**



▲ 닭고기를 주재료로 음식이 마련되어 가금인양 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였다.



▲ 이날 행사는 각종 방송사들의 열띤 취재경쟁이 진행되었다.



▲ 양계협회 직원들이 ‘사랑이 지혜’와 기념품을... (이영재 한국양계조합장(좌)과 최준구 본회장(우)이 사랑이와 지혜를 안고 있다.)